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문제는 부상 위험

나지완·김선빈 한화전 살기위한 절실함에 전력질주하다 슬라이딩

이순철 코치 우려 목소리 "1루는 위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플레이"



"난 절실했는데...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죠?"

한화와의 전반기 최종전이 열린 17일, 4번 타자 나지완의 말에 KIA 덕아웃에 웃음이 터졌다. 온몸이 추시하며 트레이너실로 향하던 나지완의 볼멘소리에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있었다.

16일 1-2로 뒤진 3회 1사, 두 번째 타석에선 나지완의 땅볼 타구가 한화 투수 바티스타의 키를 넘겼다. 유격수 송광민이 쇄도해 공을 잡아내자 나지완은 1루 베이스로 몸을 날렸다. 100kg가 넘는 거구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나왔지만 공이 나지완보다 빨리 1루에 도착하면서 아웃이 선언됐다.

나지완은 "나름대로 절실한 플레이였다.

살아나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인데 멋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날 나지완 말고 허리를 두드린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다. 유격수 김선빈도 5시간28분 최장시간 경기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여파에 시달렸다.

김선빈의 슬라이딩은 3-3으로 맞선 10회엔 나왔다. 이범호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김선빈이 기습번트를 시도했다. 전력으로 1루를 향하던 김선빈은 마지막에 손을 뻗으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간발의 차로 아웃이 선언됐다. 최선을 다한 플레이지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도중 몇 차례 부상을 입기도 했

던 만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김선빈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경기를 하는 순간에는 그걸 잊게 된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게 된다.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웃었다.

현역시절 대도(大盜)로 명성을 떨친 '슬라이딩의 달인' 이순철 수석코치는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플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코치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특히 1루에서의 시도는 위험하다. 1루는 서는 게 아니라 지나쳐야 하는 곳이다. 달려오던 스피드를 이용해 쪽 가야 하는데 스피드 면에서도 이점이 없고, 부상 위험이 크다. 물

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는 하다. 송구가 높게 오는 상황에서는 괜찮다"면서도 "선수들의 의지와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찔한 한 장면이 많지만 올 시즌 찬사를 받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 하나 있었다.

6월 13일 NC 다이노스와 홈경기에서 나온 김주형의 슬라이딩이다. 7-7에서 시작된 9회 말 공격, 2사 1루에서 최희섭의 타구가 유격수 카를 넘겼다. 느리기로 소문난 주자 김주형은 1루에서 홈까지 사력을 다해 질주를 했다. 그리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간신히 홈베이스를 찍으며 최희섭의 끝내기 안타를 완성했다.

김주형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웃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슬라이딩을 했다. 감동이지 않았어요?"라고 설명하며 유유히 덕아웃을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50km 강속구 던진 박지훈

"야구 인생 처음 찍어 봤어요"

① 덕아웃 말말말

▲야구 인생 처음이에요=16일 경기에서 150km의 강속구를 던진 박지훈, 처음 150km를 찍어봤다며, 8회 구원 등판에 나선 박지훈은 강속구와 슬라이더로 두 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밥 먹을 때만 나가요=박지훈과 룸메이트인 이대환, 둘이 성향이 비슷해서 방에 앉아서 얘기만 한다면서.

▲어디 갔어? 나도 갈래=하나마스 코치, 웨이트장에 투수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더 교환 늦었잖아=이종범 한화 코치, 무등경기장 전광판 시계가 고장나서 오더 교환 시간에 늦었다며.

▲수학 그래프 몰라? 너 상고 안 나왔어?=고등학교 후배인 김주형의 타이핑이 좋다고 칭찬한 이순철 수석코치, 타격 기록을 그래프에 빗대 설명하다가.

이 수석코치는 광주상고(현 동성고) 출신이다.

▲수학요? 저는 동성고 나왔습니다=이순철 수석코치의 구박을 들은 김주형.

▲3루로 가시면 돌리셔야 하는데=올스타전 서군 사령탑인 선동열 감독, 팬서비스 차원에서 한화 김응용 감독을 주루코치로 나가보시라고 해박아줬다며.

▲볼넷은 하나인데 투구수가 71개네=엔서니의 연습경기 등관 기록을 받은 선동열 감독, 엔서니는 17일 2회 친박전에 등판해 3이닝 동안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다.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김선빈, 전날 경기 여파로 몸이 힘들다며, KIA와 한화는 16일 12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5시간28분 동안 경기를 했다. 시즌 최장시간 경기에서 김선빈과 김주찬은 수비까지 풀타임을 소화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퓨처스 올스타전도 있어요

오늘 포항서- 1군 홈런레이스

퓨처스리그의 유망주가 한자리에 모인다.

2013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이 18일 오후 5시 포항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올스타전에는 입단 5년차 이하 선수 중 각 팀당 4명씩(남부리그 24명과 북부리그 20명), 총4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남부리그(NC·상무·넥센·삼성·롯데)의 KIA에서는 투수 김윤동, 포수 이용규, 내야수 황정민, 외야수 서용주 등 4명의 선수가 퓨처스리그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사령탑은 NC 한문연 감독이 맡는다. 북부리그(경찰·두산·SK·한화·LG)는 경찰 유승안 감독이 이끈다.

올스타전의 입장요금은 무료이고, 경기 종료 후에는 인기 걸그룹 시크릿의 공연이 진행된다. 축하 쇼 이후에는 올스타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군 올스타 선수들의 홈런 레이스가 펼쳐진다.

한방 대결에는 나지완(KIA), 이승엽(삼성), 최정(SK), 김현수(두산), 강민호(롯데), 박병호(넥센), 정성훈(LG), 나성범(NC) 등 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수범·김호남·김은선 '베스트 11'

K리그 챌린지 17라운드

광주가 부천전 승리와 함께 세 명의 베스트 11을 만들었다.

광주 FC의 김호남·김은선·김수범이 17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17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범과 김은선은 2주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득점 1도움으로 부천전 역전승을 주도한 김호남은 '후반 중반 이후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베스트 11이 됐다.

중원의 해설사로 공·수에서 종합무진하고 있는 김은선도 '적극적인 2선 침투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 병행하며 팀 역전승 지원, 1득점'



의 호평을 받았다.

결승골의 주인공 수비수 김수범도 '상대의 허점을 놓치지 않은 집중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결승골 폭발'이라는 평가와 함께 2주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편 광주(7승4무6패·승점 25)는 지난 15일 휴식기를 앞두고 치러진 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3-2 역전승을 거두며, 안양(6승4무6패·승점 22)의 추격을 따돌리고 3위 자리를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맨 왼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13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아컵) 출전을 앞두고 17일 오후 파주 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가진 첫 훈련에서 압박 전술을 지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20일 호주대표팀과 동아시아컵서 데뷔전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의 대업을 향해 출발한 홍명보호(號)가 2013 동아시아 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이하·동아시아컵)을 통해 축구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7시 호주 대표팀과 2013 동아시아컵 1차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 11일 동아시아컵에 나설 23명의 태극전사를 확정해 홍 감독은 17일부터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훈련을 통해 동아시아컵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올해로 5회째인 동아시아컵에는 한국을

필두로 중국, 호주, 일본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4대 축구 강국'이 출전해 자존심 싸움을 펼친다.

한국은 호주에 이어 24일 중국(20시·화성 종합경기타운), 28일 일본(20시·서울 올림픽 경기장)과 잇달아 맞붙어 이 대회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2003년 처음 시작된 동아시아컵에서 한국은 두 차례(2003년·2008년) 정상에 올랐다.

중국도 2005년과 2010년에 우승하며 한국과 동률을 이뤘다. 반면 한국과 아시아 맹주를 놓고 다투는 일본은 3차례 준우승(2003년·2005년·2008년)에 머물러 있다.

홍 감독은 동아시아컵을 '대표팀 변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홍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을 맡으면서 '원팀(One Team)·원스피릿(One Spirit)·원골(One Goal)'의 슬로건을 내걸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자신의 철학을 강조했다.

이번 동아시아컵의 최고 볼거리는 역시 28일 예정된 일본과의 질 수 없는 한판 대결이다. 한국은 역대전적에서 40승22무13패로 우세하지만 2011년 8월 10일 삿포로 원정에서 치러진 마지막 평가전에서 0-3으로 완패를 한 터라 이번엔 반드시 설욕전의 기회다.

한편 2013 동아시아컵에는 남자부뿐만 아니라 여자부 경기도 치러진다. 여자부 경기는 2005년 대회부터 처음 도입됐는데 한국은 원년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2008년 대회에서는 4위, 2010년 3회 대회에서는 3위에 그쳤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으로서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뽐내겠다는 각오다.

윤 감독은 '골잡이' 지소연(고베)을 필두로 부상에서 복귀한 공격수 차연희(고양대교)와 전가을(현대제철)을 발탁해 공격력을 끌어올렸다.

올해 동아시아컵 여자부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인 일본을 비롯해 북한(9위), 중국(17위)이 출전해 한국(16위)과 맞붙는다. 일본은 2008년 대회와 2010년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며 대회 3연패를 노린다.

또 2005년과 2008년 대회에서 연속 준우승에 머문 북한 역시 8년만에 한국을 찾아 대회 첫 우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합뉴스